

# 캄보디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3.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10
IV. 국제신인도 .....	14
V. 종합의견 .....	1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181천 Km <sup>2</sup>	G D P	105억 달러 (2009년)
인구	1,480만 명 (2009년)	1 인 당 GDP	709달러 (2009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Riel
대외정책	친서방 외교중시	환율 (달러당)	4,139 (2009년 평균)

-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UN분류 기준 세계 최빈국으로서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앙코르와트라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과 의류산업, 건설업 등을 통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1.4%의 고도성장을 이뤘음.
- 2008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건설투자 감소, 관광산업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2009년 역시 대미 수출 악화로 1997년 이후 최저인 마이너스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1995년 UN가입, 1999년 ASEAN가입 후 2002~03년 ASEAN 의장국을 역임하며 국격(國格)을 높이려 하고 있으며, 2004년 WTO 및 ASEM에 가입하며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외교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편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두 차례의 총선을 거쳐 훈센이 단일 총리로 재임하고 있으며, 현재 훈센이 부총재로 있는 캄보디아국민당(CPP)이 제1여당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경제성장률	13.3	10.8	10.2	5.0	-1.5
재정수지 / GDP	-1.2	-2.7	-2.9	-2.9	-6.2
소비자물가상승률	6.4	6.1	7.7	25.0	-0.7

자료: IMF, EIU.

#### □ 2005~07년중 연평균 11.4%의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

- 2005년 다자간섬유협정(Multi-Fiber Textile Arrangement: MFA)의 종료로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의 국제경쟁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 중국 섬유제품 수입 규제로 인해 의류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5~07년 연평균 11.4%에 달하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 □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세 둔화

- 2008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주요 수출대상국인 선진국들의 수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의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한 건설 투자 감소, 관광산업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로 급격히 하락하였음.
- 세계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09년 역시 전년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전년 대비 6.5%, 0.9% 축소되었음. 특히 대미 수출 악화로 100개가 넘는 섬유·봉제 공장이 폐쇄되었으며 이로 인한 실업자가 3만 명이 넘는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캄보디아는 1997년 이후 최저인 마이너스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인플레이션 우려는 축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임금인상 억제, 리엘화 환율 안정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7년말 들어 주요 식료품 가격 상승과 국제 고유가의 영향으로 급속한 상승 압력을 받기 시작하였음.
- 2008년에는 상반기중의 고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1997년 이후 최고인 전년대비 25.0%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소비심리 악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급속히 하락하였으며, 쌀 가격 및 유가의 급속한 하락과 건설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에 따른 달러 유입 감소, 실업률 상승 등으로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0.7%를 기록하며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음.
- 소비심리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비용 상승 등으로 2010년 1월 전년동기대비 6.9%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수준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 오랜 전쟁과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한 세수 부족, 세수행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해외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에 의존하고 있음. 2008년 12월에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각국 정부 및 대외원조기관으로부터 총 9.5억 달러의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을 지원받았음.
- 2008년에는 GDP 대비 2.9% 수준이었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2009년에는 GDP의 6.2%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 2009년 캄보디아의 GDP 대비 재정수입은 11.2%로 전년 11.4% 대비 감소한 반면 GDP 대비 재정지출은 17.5%로 전년 14.3% 대비 증가하였음.

○ 캄보디아 정부는 2010년 전년 대비 14.2% 증가한 8조 3,000억 리엘의 예산 지출 계획을 세웠으나, 동시에 새로운 재산세 도입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해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할 계획임.

\* 2010년부터 1억 리엘(약 25,000 달러) 이상의 토지, 주택에 대해 연 0.1%의 재산세가 부과될 계획임.

○ 정부의 세수행정 개혁 및 밀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2010년에도 6%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수출구조

○ 캄보디아 제조업의 대부분은 봉제, 의류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경제성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큼. 또한 대부분의 자본재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상품수출에서 의류제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로 의류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과 유럽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진국의 의류제품 수요가 위축될 경우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대상국(2008년) : 미국(54.4%), 독일(7.7%),  
캐나다(5.9%), 영국(5.5%) 등

####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도로, 전기, 용수 등 투자 인프라가 크게 낙후되어 있어 대부분의 진출기업들이 자가 발전기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투자환경이 열악한 상황임.

- 특히 전력 부문이 가장 열악한 편으로 전체 국민의 17%만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 사용자들의 대부분이 수도인 프놈펜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도시를 벗어나면 전기 사용이 거의 불가능함. 송배전 시스템도 매우 낙후되어 있고, 통상 하루에 4~5번의 정전이 발생하여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 심각한 부정부패 수준

- 캄보디아는 세관, 세무, 행정 관련 부정부패가 심각하여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2009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캄보디아는 총 180개국 중 158위를 기록하였음.

□ 숙련 노동력 확보 어려움

- 숙련 노동력의 부족으로 기술자 확보가 어렵고, 일부 고급 인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산업화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 훈련 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임.

나. 성장 잠재력

□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발전 도모

- 캄보디아는 독특한 역사적 유물과 오염되지 않은 청정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으며, 아시아 관광대국인 태국과 인접한 위치에 있어 관광산업 유치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이에 캄보디아는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6년 관광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에 170만 명인 관광객 수를 2010년까지 310만 명으로 증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며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앙코르와트는 세계 최대 관광지 중 하나로서, 호텔 및 기타 위락시설이 집중되는 거대 관광지로의 성장이 기대됨.

- 한편, 2008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세계경기 침체로 주요 관광객 유입국인 한국의 대 캄보디아 관광객 수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의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2010년 이후 경기 회복으로 관광객 수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임.

#### □ 석유 생산 가능성 증대

- 캄보디아 원유 발굴은 2002년 시추작업을 시작한 미국의 셰브론 (Chevron), 일본의 미쓰이 (Mitsui), 한국의 GS칼텍스 등 3자 합작 컨소시엄이 2005년 캄보디아 남부 해안 A블록에서 상당량의 원유매장을 확인하면서 본격화되었음. 현재 6개 광구에서 프로젝트가 진행중임.
- 세계은행은 이 유전의 추정 매장량을 20억 배럴로 발표하였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2011년 석유 생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중이나, 기술적 문제와 인접국인 태국과의 유전 소유권 분쟁 등으로 상업생산은 2013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캄보디아의 석유 생산이 가시화되면 캄보디아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정책성과

##### □ 경제 개혁정책의 지속 추진

- 오랜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적 빈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던 캄보디아는 1997년 훈센 총리가 집권한 이후 정치적 안정과 함께 강력한 경제 개혁정책 추진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
- 훈센 정부는 경제개혁의 지속 추진을 위해 ① 경제성장증대, ② 고용창출, ③ 평등과 사회정의 실현, ④ 정부 효율성 증대 등의 사각정책 (Rectangular Strategy)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음.

#####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 1999년 ASEAN, 2004년 WTO에 가입한 캄보디아는 지리적으로 ASEAN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경제 개방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

-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인 캄보디아는 자본과 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 전반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음.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를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인근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 경쟁력이 높은 외국인투자제도를 구비하고 있음.
- 총리 직속기관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는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의 단일창구로서 투자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적격투자프로젝트(Qualified Investment Project: QIP)의 자격을 취득하면 세제측면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외환송금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음.
- \* 투자자는 기업소득세 면제나 특별감가상각비 공제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수입관세, 수출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음(특히 수출세 면제의 경우 구출 관세 대상으로 캄보디아 법률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적격투자프로젝트에 적용됨).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경 상 수 지	-307	-261	-543	-1,060	-967
경 상 수 지 / GDP	-4.9	-3.6	-8.1	-9.5	-9.2
상 품 수 지	-1,008	-1,078	-1,382	-1,826	-1,762
수 출	2,910	3,693	4,088	4,708	3,622
수 입	3,918	4,771	5,471	6,534	5,384
외 환 보 유 액	953	1,157	1,807	2,291	2,850
총 외 채 잔 액	3,513	3,527	3,761	4,129	4,210
총외채잔액/GDP	55.9	48.5	43.3	35.1	40.2
D. S. R.	0.8	0.4	1.0	1.0	1.2

자료: IFS, EIU



□ 상품수지 적자 규모 지속

- 2008년까지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섬유부문의 호조로 인해 양호한 수출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 석유제품 및 건설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액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음.
-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 및 의류 제품의 국제 경쟁 심화로 인해 수출이 크게 위축되어 수출이 전년 대비 약 15%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규모 역시 내수 부진 및 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상품수지 적자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관광부문의 호조로 인해 서비스수지는 흑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상품수지 적자 확대, 캄보디아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이익금 본국 송환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2009년에는 관광산업 침체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 및 소득수지 적자 규모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08년 9.5%에서 2009년 9.2%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세

- 정부의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저렴한 임금수준을 바탕으로 2002~04년 연평균 1억 1,200만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2007년에는 8억 6,700만 달러로 유입 자금이 크게 증가하였음. 중국과 한국 등이 주요 투자국이며 섬유, 의류, 건설, 호텔 및 관광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음.
- 2008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8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09년 역시 전년 대비 3%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08년 캄보디아 제2위의 외국인직접투자국이었던 한국은 2009년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베트남, 태국에 이어 6위를 기록하였음.

□ 단기적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 낮아

- FDI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양호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05년 55.8%에서 2008년 35.1%로 점차 개선되었음.
- 2009년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40.2%로 다소 악화되었음(2009년말 기준 외채잔액은 43.6억 달러 수준).
- 하지만 외채의 대부분이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D.S.R.도 2009년 1.2%를 기록하는 등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인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총선에서 여당인 캄보디아국민당 압승

- 2008년 7월 27일 치러진 캄보디아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총 123개 하원의석 중 90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음.
- \* 제1야당인 삼랑시당(Sam Rainsy Party: SRP)이 26석, 왕권당인 푼신펙(Front for an Independent Neutral, Peaceful and Cooperative Cambodia: FUNCINPEC)이 2석, 인권당(Human Rights Party: HRP)이 3석을 차지하였음.
- 지난 2003년 총선에서 73석을 확보해 FUNCINPEC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CPP는 2008년 총선에서 전체의석의 73%를 차지하는 승리를 거두며 캄보디아 역사상 첫 여당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치적 안정을 위해 FUNCINPEC당과의 연정을 유지하고 있음.

□ **훈센의 경제성장 정책과 강한 지도력에 대한 지지**

- 캄보디아 국민들은 과거 5년간 훈센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이룬 경제성장 과 정치적 안정에 대해 높은 지지를 나타내었음. CPP는 이미 2007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98%가 넘는 지지를 얻은 바 있어 2008년 총선에서의 승리가 예상되었음.
- 또한 태국과 분쟁 중에 있는 국경 힌두사원 프레아 비헤아르(Preah Vihear)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켰고, 이후 벌어진 태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훈센 총리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캄보디아국민당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됨.

□ **훈센 총리, 통치체제 더욱 확고히 할 듯**

- 훈센 총리는 이번 총선의 압승으로 통치체제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더욱 강화된 정치적 안정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삼랑시당(SRP)과 인권당(HRP)은 연합하여 캄보디아국민당에 대응하는 민주변화운동당(Democratic Movement for Change)을 형성하였으나, 당분간 캄보디아국민당의 지지기반을 무너뜨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세계 인권단체들은 캄보디아국민당이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위해 잇따라 명예훼손죄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인 캄보디아의 행정 권력에 대한 감독관리 부족에 대해 염려를 표하고 있음.

**2. 사회동향**

□ **크메르루주 국제재판 진행중**

- 30년 전에 발생한 크메르루주(Khmer Rouge) 정권의 대학살 혐의에 대한 심판을 위한 크메르루주 국제재판정이 2009년 3월말 재개되었음.

현재 구금되어 있는 5명의 재판 대상자 중 첫 재판 대상은 투올슬렝 감옥의 교도소장이었던 카잉 구엑 이브(Kaing Guek Eav)임.

- 유엔과 캄보디아에 의해 2006년 7월 소집된 전범재판정은 당초 2009년 7월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 재판소직원들의 뇌물수수설,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성 부족, 재판 대상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어 2011년에야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 2009년 12월 캄보디아 전범재판소는 처음으로 크메르루주 정권의 고위인사인 누온 체아(Nuon Chea)와 령 사리(Leng Sary) 전 외무장관을 베트남인과 참족 이슬람교도에 대한 집단 학살 혐의로 기소하였음.
- 하지만 대부분의 피고들이 이미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고령인 상태여서 성공적인 재판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3. 국제관계

#### □ 태국과의 외교분쟁 악화

- 2008년 7월, 캄보디아-태국 간 오랜 분쟁 지역이었던 국경 부근의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에 대해 캄보디아가 태국 외무장관의 서명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서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의 소유권 문제를 놓고 양국의 분쟁이 격화되었음.
- 태국의 야당과 시민들은 내각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고 이후 태국 헌법재판소에서 태국-캄보디아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외무장관의 행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태국내 반대여론과 시위가 더욱 확대되었음.
- 이후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의 영유권을 두고 양국의 군대가 국경에서 대치하면서 여러 차례 교전을 벌이고 있으며,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국경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한편, 2009년 10월 부정부패 혐의로 해외도피중인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캄보디아의 경제고문으로 임명되면서 태국과 캄보디아는 각각 상대국 주재 대사를 소환하였으며,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양자 협약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외교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음.

\* 태국은 태국만의 26,000km<sup>2</sup>에 달하는 해역에서 유전과 가스전을 양국이 공동개발하기로 한 2001년의 양해각서(MOU)를 폐기하기로 하였으며, 캄보디아는 태국 국경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현대화계획과 관련해 2009년 태국과 합의한 4,120만 달러의 차관 도입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태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2009년 양국간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캄보디아의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음.

#### □ 원조 공여국들과의 관계 강화

- 캄보디아는 인권탄압과 부정부패로 인해 UN과 서방 국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주요 원조 공여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국은 대테러전쟁 수행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캄보디아의 정치체제 및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 없이 대규모 원조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대해 캄보디아 역시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One China' 정책을 고수하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2009년 12월 캄보디아 정부가 망명을 요청한 위구르 난민 20명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캄보디아에 8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음.

## IV. 국제신인도

### 1. 국제시장평가

####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10. 3)	D1 (2009. 9)
OECD	6등급 (2009. 4)	6등급 (2008. 4)
S&P	B+ (2007. 4)	-
Moody's	B2 (2007. 5)	-

\* Euromoney: 120/186 (2009. 3) → 118/186 (2009. 9) → 119/186 (2010. 3)  
 I.I.: 142/177 (2008. 9) → 139/177 (2009. 3) → 117/178 (2009. 9)

- 캄보디아는 2007년까지 OECD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나, 2008년 4월 국가 신용도 평가전문가 회의에서 캄보디아 관광산업의 호조, 외채관련 지표의 개선, 점진적인 경제성장, 석유 생산 가능성 증가 등을 이유로 캄보디아의 신용등급을 종전의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캄보디아는 심각한 부정부패, 열악한 인프라, 달러화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정부의 외환관리가 어려우며 오랜 내전과 정치 불안으로 금융 시스템 역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국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인수불가
- 영국 ECGD: 제 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중기는 개별심사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tradius: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7년 10월 30일 (북한과는 1964년 2월 28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 (1964), 투자보장협정 (1997), 경제기술협력협정(1997), 항공운수협정 (2001), 문화협력협정 (2006)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캄보디아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캄보디아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281	294	273	편직물, 섬유제품, 자동차
수 입	9	14	18	의류, 신발, 선박해양구조물 등
합 계	290	309	292	

자료: 한국무역협회

- 캄보디아와의 교역규모는 1997년 양국수교 이후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대 캄보디아 무역수지 흑자가 1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2009년 대 캄보디아 수출은 2억 7,332억 달러, 수입은 1,820만 달러로 2억 5,512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대 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는 2009년말 현재 부동산업, 건설업, 제조업 중심으로 1,442건, 15.7억 달러를 기록(투자누계 기준)하고 있음.

#### □ 제6위의 EDCF 지원대상국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EDCF 지원 현황은 2009년말 기준 총 9건, 2838억(승인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 6위 지원대상국임. 우리나라 정부는 캄보디아를 중점 지원 대상국에 편입시키며 KSP 사업을 확장하는 등 원조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VI. 종합 의견

- 캄보디아는 2005년 이후 의류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3년 동안 연평균 1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관광산업 및 외국인직접투자 위축 등으로 마이너스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0년에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회복, 관광객 증가 등으로 3% 이상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쌀 가격 및 유가의 급속한 하락과 건설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에 따른 달러 유입 감소 등으로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0.5%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으나, 2010년 내수가 회복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7월 실시된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국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역사상 첫 여당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총선 승리로 인하여 훈센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 추진이 기대됨. 한편, 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교역규모 축소 및 관광객 감소로 인한 타격이 우려됨.
- 외채의 대부분이 중장기 공적채무로 이루어져 있고 외채관련 지표가 개선추세에 있어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전문연구원 이 세 린 (☎02-3779-5655)

E-mail: [srlee@koreaexim.go.kr](mailto:srlee@koreaexim.go.kr)